

##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### 1. 관련 기사

□ 2.20.(금) 중앙일보, 공공기관 내 집안싸움... 9년전 인국공 사태 우려

-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'비정규직의 정규직화'에 속도를 내고 있다.
-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.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도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곧 출범한다.

### 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및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공무직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
  - 다만, 이는 적정임금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
-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	책임자	과 장	김동욱 (044-202-7661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은 (044-202-7981)